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초반부터 의학 분야에서는 실험과학의 방법을 엄격히 적용해야만 의학이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었고, 의학을 실험실에 접목하려는 실험실 의학이 체계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 병실에서의 우연적이고 소극적인 관찰보다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19세기 초반의 실험실에 기반을 둔 의학 모델은 유스투스 리비히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기센 대학의 화학 교수로 일하며 생물학적 기능을 선천적인 생리적 활동의 소산으로 다루기보다 신체 내부의 화학적, 물리적 과정의 결과로서 연구 하면서 의학 연구에 화학 연구를 결부시키는 전통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비슷하게 클로드 베르나르도 실험실 과학을 프랑스 의학의 일부분으로 승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의학 교육과 연구에서 실험과학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질병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실험실 연구 덕분에 1830년대 이후로 세포가 핵과 그 외의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썩은 고기나 고여 있는 물에서 단순한 생물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자연발생설’에 관한 해묵은 논쟁은 별개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덮지 않고 식탁에 고기 조각을 방치하면 며칠 안에 구더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파리가 낳은 알에서 구더기가 부화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그렇다면 구더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시기 과학자들에게 가장 쉬운 설명은 영양분이 공급되는 환경에서 이 생물들이 일종의 화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었다. 이는 ㉡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 해석이었으며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1850년대 후반부터 자연발생 여부를 두고 벌어진 ‘파스퇴르-푸세 논쟁’은 실험 방법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사건이었다. 화학자로서 훈련이 되어 있던 파스퇴르는 다양한 화합물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데 능했고, 포도에 효모를 섞어 와인을 만들거나 효모를 넣어 빵을 부풀리거나 하는 발효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발효를 효모가 반응속도만 높이며 그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촉매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화학적 반응으로 이해해 왔으나, 파스퇴르는 발효가 포도나 밀가루 반죽의 당분을 먹고 살아가는 효모 때문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상한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과정에도 다른 미생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했고, 엄밀한 실험 도구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파스퇴르와 유사한 실험을 했던 푸세의 실험에서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파스퇴르는 실험

기구가 철저히 소독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자연발생이 일어났다는 푸세의 관찰은 외부 미생물에 의해 실험기구가 오염된 결과라는 것이었다. 물론 고온의 가열에도 죽지 않는 균이 존재함을 알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미생물을 발견한 푸세의 실험 결과가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당시에 파스퇴르가 취했던 과학적 검증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이 논쟁은 파스퇴르의 승리로 끝났다. 여기에는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라는 병리학자 피르호의 중요한 발언이 당시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배경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파스퇴르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이었기 때문에 파스퇴르를 믿고 싶어 했고, 이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다. 1860~70년대에 파스퇴르는 미생물 연구를 진척시키는 동안에 질병세균설을 강력하게 옹호 하였고, 이후 여러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실험 도구와 장비들의 개선은 당대 과학은 물론 의학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현미경뿐 아니라 렌즈 아래에 놓고 검사할 표본을 준비하는 도구도 크게 개선되었다. 염료처럼 작용하는 특수 화학물질인 착색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세포 구조의 특징적인 부분에 색을 입혀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다. 염색된 핵에는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은, 어둡게 염색된 여러 가닥이 보였다. 세포분열 중에는 염색체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이나 과학자들이 확인한 세포의 다른 부분은 20세기가 되어서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실험 도구와 방법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실험실 의학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세기 자연발생설의 양상
 - ② 19세기 실험실 의학의 정립 과정
 - ③ 1850년대 파스퇴르와 푸세의 논쟁
 - ④ 19세기 중반 생물학의 성과와 한계
 - ⑤ 1860년 이후 파스퇴르의 미생물 연구

2.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험을 통해서 파스퇴르와 푸세는 생물의 자연발생 여부에 관해 논쟁했다.
- ② 19세기 초반까지 과학자들은 대체로 생물의 발생을 화학적 과정으로 이해했다.
- ③ 파스퇴르는 효모가 발효 과정에서 촉매 작용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 ④ 파스퇴르는 푸세가 실험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아 부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 ⑤ 실험실 의학의 중요성은 과학적 실험 방법이 마련된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했다.

3. ㉠의 진술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점]

- ① 답이 명확하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는 없다.
- ②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으로 속일 수는 없다.
- ③ 답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 ④ 최선의 답을 모른다면 차선의 답이라도 구해야 한다.
- ⑤ 답에 대한 시비가 있다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온의 가열에도 죽지 않는 균이 존재한다.
- ② 발효는 효모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이다.
- ③ 단순한 생물은 자연발생 과정으로 생겨날 수 있다.
- ④ 외부적 관찰을 통해 생물의 발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방치된 고기 조각에서 생긴 구더기는 화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879년에 파스퇴르는 우연한 일로 독성이 약해진 닭콜레라 유발 미생물을 닭에게 주사하여 면역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닭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을뿐더러 면역이 생기기도 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에 생기는 탄저병에 관한 백신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공개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즉, 백신을 주사한 양과 주사하지 않은 양에게 탄저균을 주입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양들은 거의 죽어가고 백신을 맞은 양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 ① 파스퇴르가 닭콜레라를 치료하는 데 백신을 사용한 까닭은 소독이 병균 억제에 중요했기 때문이겠군.
- ② 파스퇴르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푸세와의 논쟁에 사용했던 실험 방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겠군.
- ③ 파스퇴르는 발효나 미생물 발생 실험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에 동물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미생물과 관련지어 생각했겠군.
- ④ 파스퇴르는 같은 실험에서도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백신의 발견에서도 우연에 의존했겠군.
- ⑤ 파스퇴르가 백신의 효과를 공개실험을 통해 확인하려 한 것은 실험실 연구로는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군.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화 없던 사내의 얼굴에 비로소 어떤 심상찮은 표정이 떠오른 것은 그가 그 2백여 미터 남짓한 교도소 길목을 빠져나와 공원 입구계까지 닿았을 때였다.

— 새들은 하늘과 숲이 그림습니다.

공원 입구의 오른쪽으로 한 작은 가갯집이 비껴 앉아 있고, 그 가갯집 부근의 뽕나무 가지들에 크고 작은 새장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뽕나무 가지들 중의 몇 곳에 그런 비슷한 광고 문구가 씌어진 현수막이 이리저리 내걸려 있었다.

— 새들에게 날 자유를 베포시다.

— 자비로운 방생은 당신의 자유로 보답받게 됩니다.

새장의 새를 사서 제 보금자리로 날려 보내게 해 주는 이른바 방생의 집이었다.

사내는 비로소 긴 망각의 골목을 벗어나 온 듯 거기서 문득 발길을 머물러 섰다. 그리고는 ㉠ 어떤 깊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젖으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댔다. 사내의 그 마르고 지친 얼굴 위로는 잠시 어떤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솟아 번지기까지 하였다.

— 사내는 이윽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가 걸어 나온 교도소 [A] 길목을 조심스럽게 한번 건너다보고 나서 그 방생의 집 쪽으로 길을 건너갔다.

마침 그때 그 길 건너 가갯집에서는 공원을 찾아온 중년의 사내 한 사람이 흥정을 한 건 끝내 가던 참이었다.

“이제 선생님께선 이 녀석에게 하늘과 숲을 마음껏 날 날개를 주신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녀석의 자유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녀석의 자유를 사신 것은 바로 선생님 자신의 자유를 사신 것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방생의 집’ 주인이 방생에 쓰일 새들의 날개에 상처를 입혀 새들이 멀리 날지 못하게 하여, 방생된 새들을 다시 수거하고자 장사에 재사용한다는 사실이 ‘사내’에 의해 밝혀진다. ‘사내’는 상처 입은 새를 구하여 고향을 향하는 길에 나선다.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녀석을 떠나온 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었을 게다. 게다가 이제부터 도시엔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게 되거든. 너 같은 건 절대로 그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작자도 아마 그걸 알았을 게다. 글썄, 네놈도 그 작자가 암말 못하고 멍청하게 날 바라보고만 있는 꼴을 봐 뒀겠지. 내가 네놈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아, 그야 나도 물론 작자한테 그만큼 값을 치르긴 했지만 말이다.”

맞은편 산굽이끼로부터 도시를 향해 길을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 패가 사내의 걸을 시골적하게 떠들고 지나갔다. ㉠ 사내는 잠시 말을 끊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행을 스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가 등 뒤로 멀리 사라져 간 다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반 해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 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 널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 돈 덕분인 줄이나 알아라. 하기가 그건 내가 정말로 집엘 닿는 날까지 기어코 안 쓰고 지니려던 거였지만…… 하지만 난 후회 않는다. 암 후회하지 않구말구. 그까짓 돈이야 몇 푼이나 된다구…… 이런 물골을 하고 빈손으로 고향 길을 찾기는 좀 뭣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구 어디 사람까지 변했나…… 아니, 아니 내 아들 녀석도 물론 그런 놈은 아니구.”

㉡ 사내는 제풀에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었다. 가슴속 녀석이 응답을 해 오듯 발가락을 몇 차례 꼼지락거렸다. 그 바람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 녀석의 발짓을 느끼고 있던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어쨌든 잘했지. 떠나온 건 잘했어.” 사내는 다시 발길을 떼 옮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녀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글썄, 이렇게 내가 제 발로 녀석을 찾아 나섰기가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거기서 겨울을 지낼 뻔했질 않았나 말이다.”

그리고 ㉣ 사내는 뭔가 더욱 은밀하고 소중한 자신만의 비밀을 즐기듯 몽롱스런 눈길로 중얼거림을 이어갔다.

“너도 곧 알게 될 게다. 우리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나서길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이다. 남쪽은 북쪽하곤 훨씬 다르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이니까. 너 아마 대숲이 있는 곳이면 겨울도 그만일 테지. 내 너를 그런 대숲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다. 녀석의 집 뒤꼍에도 그런 대숲은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암 대숲이야 많구말구…… 너 그럼 그 대숲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내려무나……” 사내의 얼굴은 이제 황홀한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것 처럼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계속 걸으면서 중얼댔다. “넌 아마 그래야 할 게다. 가엾게도 작은 것이 날개를 너무 상했으니까. 이 겨울은 그 대숲에서 날개가 다시 길어 나기를 기다려야 할게야. 내년엔 다시 날이 풀리면 네 하늘을 맘껏 날 수가 있을 때까지 말이다. 그야 너만 좋다면 녀석의 집에서 이 겨울을 너와 함께 지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네 맘은 아닐 테니까……”

석양의 햇살이 점점 더 풀기를 잃어 갔다. ㉤ 구불구불 남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하얀 신작로 길도 먼 곳에서부터 차츰 윤곽이 아득히 흐려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에게 아직도 한줄기 햇볕이 등줄기에 그토록 따스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한줄기 햇살이 꺼지지 않는 한 그의 눈앞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좁은 신작로 길이 그토록 따뜻하고 맑게 빛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건 차라리 사내의 가슴속을 끝없이 비춰주는 영혼의 빛줄기와도 같았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전모를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와 심리가 밀도 있게 드러나고 있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일들을 교차시켜 편집한 장면의 제시를 통해 이야기의 구성이 다각화되고 있다.
- ③ 이념에 대한 대조적 입장의 병치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이 대립적 국면으로 극화되고 있다.
- ④ 인물로 등장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통해 갈등 양상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다.

7.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변화된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사건의 개연성이 부각된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의 변화가 대비되어 사건의 계기가 형성된다.
- ③ 일상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묘사되어 사건의 반전이 이루어진다.
- ④ 인물의 감정이 변화된 정황이 드러나서 사건의 위기감이 고조된다.
- ⑤ 공간적 배경의 변화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8. [너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의 연민을 부르는 대상이다.
- ② '사내'에게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대상이다.
- ③ '사내'가 몸의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사내'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사내'가 재회의 기대를 이루어 반가워하는 대상이다.

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마주쳤음을 짐작하게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 ② ㉡: 지향하는 가치관이 상반된 이들의 간섭으로 자신의 여정이 방해받고 있는 장면이 연출된다.
- ③ ㉢: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잠시 들었던 의구심을 떨쳐 내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해 가는 정황이 드러난다.
- ⑤ ㉣: 시간의 변화로 대상의 속성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는 문맥이 형성된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잔인한 도시」는 도시가 주요 인물처럼 설정된 소설이다. 수감 생활의 억압된 처지를 벗어난 자유로운 새 삶에 대한 염원을 새의 방생을 통해 기원하는 선한 의지가, 방생을 부당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잔인한 인간'에게 배신 당하였음을 깨달은 '사내'는 도시를 떠나 고향을 향하는 길에 나선다. 이 길은 '잔인한 도시'에 대적하여 투쟁하는 수행에 수렴되는 것이라 해도 좋다. 다만 그 싸움의 승패를 선불리 확실하기 어려운 것은, 대적의 상대가 현대 사회의 강력한 구조적 문제의 거점인 '도시'인 까닭이다.

- ① '교도소 길목'에서 '방생의 집'으로 향하는 '사내'의 심정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기원하려는 선한 의지에 맞닿아 있겠군.
- ② '너 같은 건'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새'에게 이르는 것을 보면, '방생의 집'으로 대변된 도시의 잔인한 이면에 대한 방증을 상처 입은 '새'의 처지를 보고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사내'가 자기 판단이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대적한 투쟁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의구심의 혼재가 '새'의 상태에서 비롯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은 '새'에게 상처를 준 '잔인한 도시'와는 달리 '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사내'의 남행 길을 비추는 '한 줄기 햇볕'이 '영혼의 빛줄기'와 같다고 한 것을 보면, 도시를 떠나 고향을 향해 나선 '사내'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엿볼 수 있겠군.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 오규원, 「문」 -

(나)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벌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화자의 행동과 관련한 감각적 경험 내용이 직접 표현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현실과 환상을 함께 경험하는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③ (가), (나) 어디에도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 (나)는 각기 상징적 표상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한다.
- ⑤ (가), (나) 모두 작품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반복과 병치를 사용함으로써 리듬을 형성한다.

12.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상이 '우리 집'에서 '어느 집'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시인의 인식도 확장되고 있군.
- ②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삶의 무상함이 상징적 시어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
- ③ 각각의 개인이 각각의 '집'이라 생각한다면 '문'이나 '담', '벽' 등은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소통 관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일상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대상의 여러 특징들을 성찰을 통해 발견하면서 대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군.
- ⑤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의미들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독자들이 직접 생각해 보게 하려는 까닭인 것 같아.

13. (가)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발상을 보여 주는 진술은?

- 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웃는 표정이 다르다.
- ② 어린아이의 웃음은 어른의 웃음보다 밝고 깨끗하다.
- ③ 어제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웃지 않는다.
- ④ 내가 보이는 웃음은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웃음이 선의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색함일 수도, 위선일 수도 있다.

14.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차고 슬픈 것'에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 ② '길들은 양 언 날개'는 시적 대상이 화자를 불러내었음을 보여준다.
- ③ 침표 전후에 배치한 '반짝'은 슬픔의 승화를 함축한다.
- ④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암시한다.
- ⑤ '날아갔구나!'는 화자가 새삼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 시의 화자는 ㉠, ㉡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 ② 각 시의 화자는 ㉠, ㉡에 대해 탐구적인 태도를 취한다.
- ③ 각 시의 화자는 ㉠, ㉡의 실체가 확인되자 절망하고 만다.
- ④ 각 시의 화자는 ㉠, ㉡을 가변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다.
- ⑤ 각 시의 화자에게 ㉠, ㉡과의 관계 형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사물이 그릇 속에 존재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인간은 사물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주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 지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던져져 주어진 자리에 머무른 채 살지는 않는다. 어떤 필요에 따라 사물들을 이용하거나 대상에 대해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수행의 영역이 인간 삶의 공간에 상응한다. 이 공간은 수행의 진전 여하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다른 양태로 변경될 수도 있다.

공간은 인간 존재의 지향에 따라 의미를 얻는다. 인간은 공간 속 ‘어딘가에’, 즉 특정한 위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느 곳에 처해 있는 방식은, 그가 우연히 ‘어딘가에’ 버려졌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바로 그 곳이 자신에게 속해 있고 자신과 한 몸처럼 묶여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인간은 공간에 버려진 듯이 느낄 수도 있고 공간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 공간과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고 공간을 낯설게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공간에서 공간과 맺는 관계의 변화 양상이다.

하이데거는 인간 실존이 세계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 대해 얘기한다. 던져진 상태는 인간이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그의 의지에 반하여 낯선 세계 안에 들어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있는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영역에 상응하는 세계의 지평을 넓히려고 도모하는데, 이를 ‘존재의 기획’이라 한다. 이러한 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인간은 던져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고향을 잃어 버리고 뿌리가 뽑혀 나간 우리 시대의 인간이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정확하게 본 모습이다. 이 모습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결여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대인의 특징이다.

(나)

사람들이 장소를 경험할 때는 보통 긴밀한 애착, 즉 친밀감이 생긴다. 친밀감은 특정 장소에서 ‘여기’를 알게 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가 장소에 내린 뿌리는 바로 이 애착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 애착이 포괄하고 있는 친밀감은 단지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이다.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장소와 깊은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욕구이다.

㉡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 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장소들은 그 속에 우리의 복잡다단한 경험이 있으며 복잡한 애정과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이다. 그러나 장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지는 관심 이상이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대한 전적인 관심,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것 못지않은 심오한 관심이 거기에 있다. 소중히 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런 헌신과 책임에는 하이데거가 ‘아낌’이라고 부른 것이 포함된다. 즉, 아낌이란 사물, 여기서는 장소를,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예컨대 장소를 무리하게 인간의 의지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세우거나 농사를 지음으로써 장소를 돌보는 것이 온당한 자세이다.

16. (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공간의 의미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과 공간의 일체감이다.
- ② 던져진 자리에 머무르는 행위는 사람들이 존재의 기획을 위한 주요 전략이다.
- ③ 어떤 곳에 묶여 있다고 느끼는 감각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
- ④ 공간을 고정된 사물로 보는 것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인간이 특정한 공간에 부여한 의미에는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에도 유지되는 불변의 자질이 있다.

17. (나)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다른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여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③ 용어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의 논리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개념이 잘못 적용된 사례를 들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난해한 표현을 대체할 일상적 표현을 제안한 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설하고 있다.

18. ㉡에 주목하여 추론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을 배제할 때 가능해진다.
- ② 인간이 고정불변의 사물로 규정된다는 것은 ㉡을 전제로 할 때 타당하다.
- ③ 인간이 필요에 따라 사물을 이용할 때 이미 ㉡의 방향은 결정된 상태이다.
- ④ 인간이 사물과 구별되는 속성은 ㉡과 무관하게 선형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 ⑤ 인간의 존재 방식과 사물의 존재 방식의 다른 점은 공간과 연관될 때 ㉡의 자질이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 세계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 ② 인간이 장소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려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 ③ 인간이 복잡다단한 삶을 이어갈 환경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 ④ 인간이 세계를 경험할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영역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 ⑤ 인간이 과거 경험을 통해 미래의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알게 되는 행위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집은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활 공동체의 근거지라는 가치를 함의한다. 가족들에게 집이란 거주의 공간이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영역이다. 안정성이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정착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착을 통해 집은 물리적 공간에서 개인적·심리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안락을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집은, 가족들에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고찰하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은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집은 구성원들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적 터전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족들이 집에 함께 머무는 것은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 세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①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한 얘기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드러내는군.
- ②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공간을 돌보는 동시에 인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군.
- ③ 정착을 통해 집의 가치가 물리적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이 일정한 양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는군.
- ④ 집이 구성원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심리적 터전이라고 보는 것은 인간이 특정한 장소에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성향이 있다는 견해와 부합하는 면이 있군.
- ⑤ 가족들이 집에 함께 머무는 것이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 세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 어딘가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지대를 얻고 자기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전략적 행동이라 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데, 경제학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점기업들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된다. 현실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 문제가 이 게임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의 분석에는 게임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규모는 시장 전체에 비해 매우 작아서 기업끼리의 상호작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뿐 이어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

게임이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살펴보자. 명백하게 징역 1년 형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체포되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각각 격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되었다. 중대 범죄를 시인하고 다른 사람을 주범이라 증언하면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되고 그 주범만 징역 20년 형을 받을 것이지만, 둘 다 시인하면 공범으로 8년 형씩 받을 것이라는 제안에 들은 어떤 전략적 행동을 할까? 두 사람은 각각 자백과 침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한정된다. 이들이 받을 형량은 자신의 선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도 달려 있다.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만, 상대방이 자백할 것을 두려워하여 둘 다 자백하게 된다. (㉡)

게임이론의 핵심 개념은 '최적 대응'과 '내쉬균형'이다. 최적 대응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전략을 말한다.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적의 전략이라면 이를 '우월전략'이라 하고, 둘 다 우월전략을 선택해서 다른 상태로 바뀔 유인이 없는 상황을 '우월전략균형'이라 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자백은 두 사람 모두에게 우월전략이며, 이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나타난 균형, 즉 둘 다 자백한 상태가 **우월전략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는 조건이 현실에서 완전히 충족되기는 무척 어려우며, 어느 한쪽만 우월 전략을 갖는 경우도 그리 흔하지 않다. 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균형 중에는 우월전략균형 외에도 '내쉬균형'과 같은 다른 종류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적 대응의 성격을 지니는 우월전략과 달리 **내쉬균형**의 전략은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존 내쉬(John Nash)가 제안한 균형 개념의 핵심으로, 균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적어도 한쪽이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지며, 따라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에 균형이 아니다. (㉢)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보듯이 과점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과점기업들의 명시적 담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파악한 다음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도 범행을 부인하리라 믿고서 침묵으로 버텼는데 막상 상대방은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자. 반복되는 다음 게임에서는 자신도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 간의 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곧 다른 기업의 보복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㉞)

그렇다면 과점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경우나 불필요한 군비 경쟁 등의 경우에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점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담합에 실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㉞)

21.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임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 ② 게임이론의 연구 대상인 전략적 행동은 무엇일까?
- ③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게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게임이론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은 어떠한가?
- ⑤ 게임이론을 경제 문제의 분석에 적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접한 두 나라 간에 벌어지는 국제적인 경제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게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시장 전체의 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은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지 않다.
- ③ 담합을 통해 독점 이윤을 얻고자 하는 과점기업들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 ④ 특정 재화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는 게임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 ⑤ 과점기업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부가 엄격히 단속하기 때문에 과점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3.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② ‘내쉬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상대의 전략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다.
- ③ ‘내쉬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대가 전략을 바꾸면 자신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
- ④ 한 대상만 우월전략을 갖더라도 ‘우월전략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현실에서 ‘우월전략균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24. 윗글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기>의 사례를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우물이 2개뿐인 마을에서 각각의 소유주 두 사람은 물 공급량 결정을 매주 토요일 만나 결정하기로 한다. 물값은 공급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며, 편의상 물을 퍼 올리는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하자. 또한 총생산량이 60갤런일 때 물값은 갤런당 60달러로 3,600달러의 최대 수입을 거두지만, 70갤런을 생산하면 물값은 갤런당 50달러로, 80갤런을 생산하면 갤런당 40달러로 점차 하락한다고 할 때 두 소유주의 물 공급량 결정은 어떠한가? 어느 한 소유주가 약속을 위반하고 40갤런을 생산하면 그 후로 둘은 모두 40갤런씩 생산하기로 하는 벌칙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벌칙만으로도 장래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주라면 아무도 한 번의 높은 수입을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마을에 경쟁 관계에 있는 서핑용품 판매점 A, B 두 곳만 있다. A와 B는 각각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A와 B가 벌어들인 수익을 상황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A의 선택	
		광고함	광고 안 함
B의 선택	광고함	400만 원 / 400만 원	300만 원 / 700만 원
	광고 안 함	300만 원 / 700만 원	800만 원 / 800만 원

- ① A, B 모두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A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 ② A, B 모두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B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 ③ A가 광고를 하고 B가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B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 ④ A가 광고를 하지 않고 B가 광고를 한 경우, A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갖지 않는다.
- ⑤ A, B 모두 광고를 한 경우, B는 전략을 바꿀 유인을 가진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정기술이란 한 사회의 환경, 윤리, 문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히 고안된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지역 생태 환경에 적합하며 자주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이 개념은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로부터 비롯되었다. 슈마허는 대중에 의한 생산을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기술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술혁신이 빠르고 기술 집약도가 높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로 자원을 소비하는 특징을 지닌 첨단기술과 구분되고 전래부터 사용해 온 토속기술과도 구분되는 중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슈마허가 중간기술을 구상했을 때, 그것은 빈곤국의 자원과 필요에 적합하게 소규모이며 간단하고 돈이 적게 드는 기술을 의미했다.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착한 기술’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슬로건에 가까웠다. 따라서 주로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나 기술의 자주성에 초점이 맞춰진 단순한 기술, 또는 값싼 기술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구매력이 있는 상위의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 진정한 의미에서 적정기술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 곧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론적 관점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

하지만 그 이후 현지화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친화적 발전같은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정리되어 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적정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필요와 당위성이 생겼던 것이다. 1973~1974년에 일어난 석유 파동은 사람들이 값싸고 풍족하게 여겼던 석유가 한순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오랫동안 첨단기술에 의존하여 그 속에서 편리를 추구해 왔던 사람들은 첨단기술이 정작 위기상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첨단기술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에, 지정학적 불안정, 환경 재해, 자원 고갈 같은 문제들은 모두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들이었다.

위기는 새로운 상황을 기존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 된다.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35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쓰나미 사태라든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찾아온 세계적 차원의 금융·경제 위기 등은 첨단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일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기존의 고비용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의 한계, 원자력 발전의 재난 위기 취약성, 성장 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등의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적정기술의 가치에 대해서도 재발견하게 되었다.

적정기술의 재발견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는 배경에서 ‘타이니 하우스’라는 새로운 주택 형태가 유행하였다. 10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집 형태의 타이니 하우스는 이동이 가능한 데다가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빗물과 샘물을 활용하여 물을 얻는 친환경적 기술을 사용한다. 이 작은 집은 주택 담보 대출의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관심을 받아 인기를 끌었지만, 그 후로는 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널리 알려졌다. 지속적인 경제 호황을 경험하던 시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사례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적정기술의 지향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 와서 적정기술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실용적이고 자립적인 기술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작동하는 기술로서의 새로운 모색이다. 이제 적정기술은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기술, 공동체 기술, 혹은 사회 문제 해결 기술 등과 같은 새 시대의 대안적 기술과 사업 모델로서 모색될 전망이다.

26.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과 검증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개념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반된 개념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 ④ 항목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 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적정기술은 국민국 국민의 삶을 구제하기 위한 원조 기술이다.
- ② 영리를 기술 개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적정기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적정기술은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위기상황에 취약하다.
- ④ 오늘날 적정기술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⑤ 선진국이 적정기술에 새롭게 주목하는 까닭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로부터 적정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8.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정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이 낮다.
- ② 저비용의 친환경적 기술로 보기 어렵다.
- ③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 ④ 대규모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 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29. ㉠에 제시할 만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책가방 없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어느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공책을 바닥에 놓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을 위해 가방 기능을 하는 책상인 ‘헬프테스크’가 제작되었다. 폐지를 모양대로 자른 뒤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이 제품은 적은 비용으로 가방이나 책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과일이나 채소 작물은 일시적으로 다량 생산된다. 이것들의 수확과 가공에는 주로 여성 노동이 투입되는데, 손으로 딱딱한 껍질을 제거하기에 긴 노동 시간과 부상의 위험이 뒤따른다. 금속과 콘크리트로 만든 ‘범용 견과 껍질 제거기’는 농촌 마을 여성들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며 판매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③ 물과 전기가 부족한 어느 시골에서는 ‘페달 펌프’가 제작되어 사용된다. 페달 펌프는 실린더를 제외하면 현지에서 나는 대나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소규모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펌프를 사용하여 농부들은 지하 6~7미터 깊이에 있는 물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 ④ 어느 시골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와 대낮에도 움막 형태의 집안은 매우 어둡다. 투명 페트병 안에 물과 표백제를 넣고 지붕의 틈새에 끼워 태양 빛을 투과하게 하면 빛의 산란으로 집안은 상당히 밝아진다. 페트병은 매우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 ⑤ 전기 사정이 안 좋은 어느 나라에서는 기부자나 투자자의 자본 및 기술 지원으로 소규모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태양광 패널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소형 가전부터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중형 가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0. <보기>에 언급된 사례가 윗글에서 설명하는 ‘적정기술’로서 적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3점]

<보 기>

플레이펌프(PlayPump)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오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놀이와 전력 공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갖게 한 상품이다. 아이들이 회전목마를 돌리면서 놀기만 하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지하수를 끌어올려 탱크에 물을 채우는 장치이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 사업에 미국의 정치가와 기부자들이 동참했고, 수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아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에 1,500대가 넘는 플레이펌프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한때 적정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 제품은 실패한 적정기술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 제품을 설치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주민들이 먹을 만큼 지하수를 올리려면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놀이기구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①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 ②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못했다.
- ③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를 통해 모았다.
- ⑤ 기술을 구현하는 데 많은 천연 자원이 필요했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 임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때를 모르는도다 <제3수>

피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나니 <제4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건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쳐 불러
이르기를 ㉤ 월황혼 겨워 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려 차마 못 살레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빠 가는 길시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다)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 자네 일정(一定)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石橋)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려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都大船)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 임 계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데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를 시적 상황으로 삼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규범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심리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3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소재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점층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의성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 주는 자연물이고, ㉡는 화자의 희망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다.
- ② ㉠은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고, ㉡는 화자의 바람을 실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이다.
- ③ ㉠, ㉡는 모두 화자의 불만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④ ㉠와 달리 ㉡는 화자의 추억을 촉발하는 요소이다.
- ⑤ ㉡와 달리 ㉠은 화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존재이다.

3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버지와 임금을 향한 뜻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다짐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 충성과 효도를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화자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 시간적·공간적 배경과 함께 진술된 외로운 상황에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 ④ ㉣: 상대방이 못 오는지 안 오는지 묻는 화자의 어조에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⑤ ㉤: 밝은 달빛을 빌려 임이 계신 곳을 비추려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의 안위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엿볼 수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유행한 십이가사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와 달리 정제된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가창 현장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특정한 어구의 반복, 장황하다고 느낄 정도의 구체적 묘사 등은 가창 현장의 즉흥적이고 흥겨운 유희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들이다. 특히 대중의 통속적 흥미와 관심에 맞추기 위해 널리 알려진 소설, 시조, 한시 등으로 노랫말을 구성하다 보니, 작품 내용과 무관한 어구가 삽입되고 노랫말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 ① ‘이 아해야 말 듣소’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가창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적 효과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는 구절을 제시한 것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소설의 내용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이겠군.
- ③ 노랫말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정서의 ‘지어자 좋을시고’를 이용한 것은 가창 현장에 모인 대중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춘수가 만사택’, ‘하운이 다기봉’, ‘추월이 양명휘’라는 한시 구절을 인용한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대부 가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나타낸 것은 가창 현장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겠군.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부인이 상서를 심하게 꾸짖으니 상서가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쭙기를,
 “누님께서 주관하신 줄 몰랐나이다. 예전에 양왕(梁王)이 구혼하여 허락했는데, 요즘 ‘선이 부모 모르게 미친한 사람을 얻어 혼례를 치렀다’ 하여 조정에 시비가 들끓기에 낙양 수령에게 기별했나이다.”

하니 여 부인이 말했다.

㉠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애정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지라. 옛날 송나라 황제도 정궁(正宮)을 폐하고 후궁(後宮)을 맞이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한 일이 있소. 내가 비록 그대 모르게 주관했으나, 그 남자는 첩과는 다르오. 또한 선이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니, 그때 상서가 원하는 가문을 골라 며느리를 구해도 될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죄 없는 남자를 죽이려 하지 마시오.”

상서는 본래 충효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지만, 만수이의 말씀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오리다.”

하고 새로 보낸 낙양 수령을 불러 분부했다.

㉡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우리 누님이 하도 말리시니 그럴 수가 없도다.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놓아 주되, 멀리 보내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중략 부분 줄거리] 상서 부인은 아들 이선을 낳을 때 해산을 도운 선녀가 남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 아들의 배필이라고 한 말을 뒤늦게 떠올리고서 숙향을 다시 불러들인다.

“네 집은 어디며, 부모는 누구이고, 나이는 몇이나 되었느냐?” 남자가 절을 하고 바르게 고쳐 앉으며 여쭙었다.

“다섯 살 때 부모님을 난리 중에 잃고 길거리를 방황했는데 어떤 짐승이 엮어다 남군 땅 장 승상 댁에 내려놓았나이다. 마침 그 집에 자식이 없어 저를 친자식처럼 십 년을 기르셨으니, 고향은 물론 부모님의 성명도 모르옵나이다.”

상서가 또 묻기를,
 “장 승상이라 하면 남군 땅 장승밖에는 없는데, 거기 있다가 어찌하여 이화정 할미의 집으로 왔느냐?”

하니 남자가 대답했다.

“승상 댁에 있던 사향이란 종이 승상 부인의 봉채를 훔쳐다 첩의 화장 그릇에 넣어 놓고 첩이 훔친 것처럼 모함했나이다. 그 일로 인해 승상 댁에서 쫓겨나 포진물에 빠져 죽으려 했는데, 마침 연꽃을 따는 아이들이 구해 주며 동쪽으로 가라 했나이다. 동쪽으로 가다 또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사운데, 화덕진군이라는 노인이 구하여 살아나게 된 것을 이화정 할미가 지나가다 보고 데려갔나이다.”

“장 승상 댁에서 할미 집까지 며칠 만에 왔느냐?”

“장 승상 댁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바로 왔나이다.”

㉢ “장 승상 댁에서 여기까지는 삼천삼백오십 리나 되니,

비록 천리마를 탔을지라도 쉽게 오기 어려우리라. 그런데 이틀 만에 왔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도다.”

상서와 남자의 문답이 끝난 뒤에 부인이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며,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름은 숙향이옵고, 나이는 열여섯 살이오며, 기축년 4월 초파일 해시(亥時)에 났사옵나이다.”

“부모님 성명도 모르면서 생일생시는 어찌 그렇게 자세히 아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게 ㉣ 비단주머니를 채워주셨는데, 자란 후에 보니 생일생시를 적어넣었더이다.”

숙향이 주머니를 꺼내 부인에게 드렸다. 부인이 비단주머니를 풀어 보니, 붉은 비단 조각에 ‘이름은 숙향이요, 자는 월궁선이며, 기축년 4월 초파일 해시생이라’는 글씨가 금자(金字)로 쓰여 있었다. /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과 나이가 같고, 이름도 선녀가 일러준 것과 같되, 다만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하니 상서가 말하기를,

“이 글을 금자로 썼으니, 틀림없이 성은 김씨인가 하노라.”

했다. 남자가 말하기를,

㉤ “제가 자란 후에 우연히 듣자오니, 지난번에 낙양 수령으로 계시던 김전이 제 부친이라 하더이다. 그러나 제가 어찌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사오리까?”

하니 상서가 말했다. / “만일 그렇다면 오죽 좋으랴.”

이에 부인이 묻기를, /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이까?”

하니 상서가 말했다.

“김전은 이부상서 운수 선생의 아들이라. 가문이 어찌 거룩하지 않으리오.”

부인이 말하기를 / ㉥ “시간이 지나면 자연 알게 되리이다.”

하고 남자에게 이선의 처소인 봉황당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남자가 봉황당으로 내려가니, 남군이 부리던 시녀 여남은 명이 남자를 매우 공경하면서 극진하게 모시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3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통해 사건의 사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3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수이는 숙향을 죽이려는 상서를 질타했다.
- ② 이화정 할미는 숙향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십 년 동안 길렀다.
- ③ 상서 부부는 숙향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 ④ 낙양 수령을 지낸 김전은 이부상서를 지낸 가문의 자손이다.
- ⑤ 남자는 상서 부인의 말에 따라 남군의 처소에 머물게 된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연장자의 권위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입장을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마지못해 수정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말에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이 전해 들은 것임을 들어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 자연의 이치를 고려하면서 이후에 펼쳐질 사태에 대해 염려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이 현실성을 지니게 한다.
- ② 현재 사건의 원인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③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게 한다.
- ④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이 표출되도록 한다.
- ⑤ 인물의 감춰진 재능이 발휘되게 한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창작된 『숙향전』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위한 고난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차례의 위기가 두 인물의 결합을 방해하지만, 이들은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하늘의 예정된 운명에 따라 혼인한다. 이 과정에서 애정을 중시하는 두 남녀가 봉건적 신분 질서와 가문을 중시하는 지배층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개인적 차원의 애정이 권위적인 지배 이념과 충돌하는 대목을 통해 신분제가 동요되는 당시의 사회현상을 엿볼 수 있다.

- ①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한 숙향을 화덕진군이 구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한 경우이겠군.
- ② 부모 몰래 아들이 결혼한 것이 조정의 시뻘거리가 되었다는 상서의 말은 권위적인 지배 이념에 따라 나타난 반응이겠군.
- ③ 숙향의 이름이 선녀가 일러준 것과 같다는 상서 부인의 말은 하늘의 예정된 운명을 받아들여려는 의지의 표현이겠군.
- ④ 아들이 미천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상서가 남자를 죽이려는 것은 개인적 애정보다 가문의 위상을 중시한 결과이겠군.
- ⑤ 사향의 모함으로 장 승상 댁에서 쫓겨난 숙향이 죽으려 한 것은 남녀 주인공이 결합에 이르는 여정 중 겪는 고난에 해당하겠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융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특수한 생활사에서 나온 무의식의 층과는 달리,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인간 고유의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의 층이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다. 융의 이와 같은 가설은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건강한 사람의 꿈과 원시 종족의 심성, 신화와 종교, 서양 사상과 인도·중국 등 동양의 사상을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다. 융은 무의식이 개인 생활의 경험 자료만이 아니라 인류의 태곳적부터 끝없이 반복되어 경험되는 일정한 인간적 체험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무의식은 수많은 신화적 상징으로 표현되고 경험되며 모든 의식된 마음에 활력을 주고 그 기능을 조절하여 의식과 통일된 ‘전체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무의식은 충동의 창고, 의식에서 쓸어 낼 쓰레기장이거나 병적인 유아기 욕구로 가득 찬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케 하는 ‘창조의 샘’이라는 얘기다.

㉠ 무의식의 창조적 작용은 자율성과 보상 작용으로 표현된다. 자아 의식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면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의식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이미지를 보내서 그것을 보상한다. 예컨대,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 꿈속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욕망에만 사로잡힌 일을 벌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일방성을 깨우치고 의식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무의식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보상 작용을 발휘하여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 맥락에서 융이 말하는 **그림자** 개념이 주목을 끈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으로,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하면서도 자아와는 대조되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아의식이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림자는 그만큼 반대편 극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아는 자신이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자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그늘에 속하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성격,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바로 그 성격이다. 가령, 친구한테 비난당할 때 심한 분노를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 그림자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자를 밖으로 투사(projection)할 때 그 투사 대상을 향한 자기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 투사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강력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고 자아가 그 대상에 집착하게 만든다. 투사는 나쁜 것은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괴로운 마음을 피하려는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적인 마음의 일부를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도 일어난다. 무의식의 내용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투사되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투사 대상에게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 속의 무의식적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림자의 투사는 집단 차원에서도 벌어진다.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는 어떤 집단 성원의 무의식에 같은 성질의 그림자가 형성되어 다른 집단에 투사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그림자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기보다 집단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을 하나의 집단 의식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하나'로 대변되는 슬로건 밑에 결속을 다짐할 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집단과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이 집단은 쉽게 배타적이 되거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향하는 집단적 목표가 일방적이고 뚜렷한 것일수록 이에 어긋나는 요소가 억압되어 공통된 그림자를 집단 성원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아무리 선의로 뭉친 집단이라도 너무 밝은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자기 집단 성원의 그림자를 보지 못할 때 처음의 좋은 뜻을 펼치는 데 실패할 ㉡ 공산이 크다.

다만, 인간 집단은 집단 행동을 통하여 집단적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이를 다른 집단에 투사하여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며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림자를 사회 표면으로 끌어 내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카니발'과 같은 문화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그림자를 투사하여 속죄양을 만들고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기능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형태에서 '그림자 놀이'를 통해 각자의 그림자를 살려서 도덕이나 규범 의식과 무의식적 충동 사이의 단절을 지양할 수 있는 것이다.

4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는 불가능하다.
- ② 집단 무의식은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이다.
- ③ 무의식이 제어 불가능한 충동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
- ④ 속죄양에 관한 개념을 만들어 자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히는 것은 무의식이 작용하는 결과이다.
- 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무의식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항상 예술적으로 승화된 형태의 결실을 낳는다.

4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의 일부이다.
- ② 의식이 무의식과 활발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 ③ 의식이 한 방향으로만 활성화될 경우 그에 반발하여 표출되는 무의식의 이미지 작용이다.
- ④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이 지향하는 인격을 대신 구현하려는 무의식의 작용이다.
- ⑤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하는 강도가 커질 때 무의식이 의식 표층에 떠오르는 이상 징후이다.

43. [그림자]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분노의 상황에서는 그림자를 볼 수 없다.
- ② 그림자는 무의식의 그늘에 속하는 인격이다.
- ③ 그림자는 집단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④ 그림자는 자아가 싫어하여 닮으려고 하지 않는 열등한 성격의 일부이다.
- ⑤ 사회 표면으로 그림자를 끌어 내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 장치가 있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카니발은 가톨릭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라인강 유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해가 바뀌는 연말에는 각지에서 가면 무도회가 열리고, 부활절 전의 카니발에서는 기상천외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등장한다. 마치 근엄한 가톨릭 수도원 공간에 유폐되었던 이교(異敎)의 귀신과 악마와 별의별 부도덕한 불한당들이 뚜껑을 열고 나온 듯하다. 신분적 위계나 윤리 규범의 제약 속에서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는 극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신분적 위계 질서에서 하층에 속하는 이들이 펼치는 의례나 연희, 놀이 등에서 자주 확인된다. 가령 탈춤판에서 양반 세력을 희화화하고 농락하며 신분적 위계를 해체한 가운데 성원들 서로가 어우러지는 장이 펼쳐지는 것은 카니발을 떠올리게 한다.

- ① 기성 질서에서 지배층은 '집단적 그림자'가 만든 무의식의 그늘에서 벗어날 특권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면'을 쓰거나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하는 행위는 투사된 '그림자'를 극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카니발'은 참여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그림자 놀이'를 설명하는 예로 삼을 수 있겠군.
- ④ '수도원 공간'은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욕망에 연관된 '집단적 그림자'를 가두는 수용소에 상응하는 표상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탈춤'은 신분 질서에 억눌린 욕구가 연희를 통해 투사되는 장을 연다고 할 수 있으니 '집단적 그림자'가 승화된 형태라 할 수 있겠군.

45.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회(機會)가 많다
- ② 단서(端緒)가 많다
- ③ 여지(餘地)가 많다
- ④ 예외(例外)가 많다
- ⑤ 정보(情報)가 많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